

바울의 동성애 신학과 목회윤리: 교회의 동성애자 수용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연구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기독교윤리학)

- I. 들어가면서
- II.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로서의 동성애
- III. 역리로서의 동성애와 신학적 성격: 롬 1:24-27
- IV. 역리/순리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주장과 비판적 검토
- V. 고린도교회의 동성애 행위자에 대한 바울의 목회윤리
- VI. 바울을 통한 현대 교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목회
- VII. 피하기 힘든 문제제기와 검토: 동성애와 다른 죄악의
형평성 문제
- VIII. 나가면서

[초록]

지난 50년 동안 교회는 동성애 이슈로 씨름해왔다. 이 이슈는 21세기에 들어 주류 교회를 분열시킨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현상은 곧 복음주의 교회와 한국교회에도 나타날 것이다. 교회의 하나됨을 도모하고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신학을 분명히 정립하고 동성애자를 교회가 어떻게 대하고 목회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연구해야 한다.

이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로, 바울 서신을 통해 바울이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둘째로, 동성애 문제를 갖고 있던 고린도교회에 바울이 제시했던 목회적 처방은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로, 바울의 신학과 목회적 처방의 빛에서 현재 우리 시대의 동성애 신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동성애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고 가르친 6장 9절의 내용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바울이 특정 동성애 행위를 정죄한 것인지, 아니면 동성애 행위 그 자체를 정죄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역리로 규정한 동성애의 의미와 수정주의자들의 다른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바울이 말한 역리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가 교회 안의 동성애 행동을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살필 것이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자세히 검토하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목회윤리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교회 안의 동성애자들에게 회원권과 직분을 주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키워드: 동성애, 알세노코이타이, 순리, 고린도교회, 동성애자의 교회 직분, 목회윤리

논문투고일 2020.01.31. / 심사완료일 2020.02.26. / 게재확정일 2020.03.04.

I. 들어가면서

1. 21세기 교회의 동성애 용인 흐름과 교회 분열

동성애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서구 개신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 가장 두드러진 이슈이다. 유럽과 미국의 주류 교회들(mainline church)은 1980년대부터 동성애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는데, 동성애를 죄악으로 간주해온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을 떠나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문제가 없다는 교단의 신학적인 입장을 천명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시노달)은 1981년 총회에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받아들였다.¹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속속히 동성애자들에게 교회의 직분과 목사직까지도 개방하였다. 미국의 주류교회에 속하면서 미국 최대 장로교인 미장로교(PCUSA)는 2011년 제213차 총회에서 동성애자 안수를 금하는 교회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들에게 성직을 개방했다.² 그리고 마침내 2015년 6월에는 동성 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기 위해 교단 헌법에 결혼 조항의 정의를 바꾸었다. 이제 이 교회는 결혼을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시민계약’에서 ‘두 사람의 시민계약’으로 수정했고 목사가 동성 간의 결혼으로 인정했다.³

미장로교가 동성애자에게 목사직과 집사와 장로직을 주기로 결정하자, 그 다음해인 2020년 더 이상 미장로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은 교단과 교회를 떠나 ‘복음언약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다. 당시 재산과 연금문제로 교단을 떠나지 못한 목사들도 많았지만, 성도들은 현저히 그 교단에 속한 교회를 떠나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로 또 새로이 결성된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로써 1980년 교단이 결성될 때만 하더라도 300만이 넘는 미 장로교는 현재 약 180만 정도로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1 변종길, 『성경과 주석』 (서울: 말씀사, 2018), 68. 특히 이 책의 4장 상관적 진리개념과 동성연애를 참고하라.

2 <http://news.kmbi.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20010905000001603> (2020/01/29 접속)

3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6832787363> (2020/01/30 접속)

올해 2020년 벽두인 1월 3일, 1200만 교인을 가진 최대 주류개신교단인 연합감리교회(UMC)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다른 몇몇 그룹의 대표자 16명이 회동하여 2020년 말에 각 입장에 따라 교단을 분리하기로 결의한 합의안을 만들었다.⁴ 불과 1년 전인 2019년 2월, 세인트루이스 특별총회에서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 총대들은 1972년부터 47년간 걸쳐 진행된 동성애 논의에 대해 동성애와 동성애자 성직 금지 장정을 폐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그동안 쌓여온 신학적 정서적 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하고 교단을 분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020년 5월 열리는 총회에서 이 합의안을 받으면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논의를 시작한지 48년 만에 교단을 분리하게 된다. 더군다나 미국 장로교회의 때와는 달리 교단을 탈퇴해도 재산분할, 연금의 불이익이 없는 신사적인 약정을 했기 때문에 분리의 규모 또한 미장로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렇게 동성애자의 직분 허용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나뉘지고 분열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

2. 신학적 분석과 목회 윤리 정립

한국 교회에도 조만간 동성애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2020년 현재 한국의 대학가와 사회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문제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간의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진보적 이념과 아젠다로 장착한 현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등의 행정기관들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지방자치조례나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보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금지하고자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은 교회와 기독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서구교회처럼 논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겪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 안의 청년들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를 빠르게 관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부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에 대해 관용적 개방적인 흐름이 있고, 이로 인해 일선 교회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조만간 교회에서도 동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가 올

4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18> (2020/01/31 접속)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만약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신자가 있을 경우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목양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교회는 한 발 앞서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검토하고 목회 윤리적 지침을 세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첫째로, 바울 서신을 통해 바울이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검토한 후 둘째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던 고린도교회에 바울이 제시했던 목회적 처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바울의 신학과 목회적 처방의 빛에서 현재 우리 시대의 동성애 신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하는 것이다.

II.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로서의 동성애

신약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곳은 로마서 1:24-27, 고린도전서 6:9-10, 디모데전서 1:10-11이다. 모두 바울서신에 나온 것이다. 디모데전서에 등장하는 “탐색하는 자”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므로 후자의 본문만을 다루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1.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로서의 동성애: 고전 6:9-10

바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던 고린도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지 못할 죄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동성애를 포함시켜 말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린도전서 6:9-10). 여기서 “탐색하는 자”는 동성애자를 당시 가리키는 단어였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는 바울이 탐색하는 자와 유사하나 다른 형태의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로 바울이

새로이 만들어 사용한 단어로 근래 학자들에 의해 판명이 되어졌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명시적으로 동성애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라고 언급한 것이다.

“탐색하는 자”의 헬라어인 ‘말라코이’(μαλακοί)는 원래 ‘말랑말랑한’(soft)이라는 의미였는데, 당시에 동성행위 때 수동적인 행위를 하는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의미가 전환되어 사용되었던 단어였다.⁵ 그런데 “탐색하는 자”의 헬라어인 ‘알센노코이타이’(ἄρσεννοκοῖται)는 당시에 없던 단어였기에 그 의미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는데, 스크룩스(Scroggs) 교수가 마침내 이것이 구약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유래된 합성적 신조어임을 밝혀내었다. 칠십인 번역본(LXX)은 레위기 18:22의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구절을 헬라어로 “Καὶ μετὰ ἄρσενος οὐ κοιμηθήσῃ κοίτην γυναικείαν”로 번역했는데,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남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센’(ἄρσην)과 ‘침대’에 해당하는 ‘코이테’(κοίτη)의 합성어가 바로 ‘알센노코이타이’라는 것이다.⁶ 그러므로 이 단어는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남자를 가리키며 주로 능동적으로 동성애를 행하는 남자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⁷ 전통적으로 교회와 학자들은 이것을 통해 바울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고 윤리임을 분명하게 믿고 가르쳐왔다.

2. 수정주의적 해석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본문은 종종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는 학자들에 의해 달리 해석되어 왔다. 예를 들면, 스크룩스(Robin Scroggs)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정죄한 동성애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주된 동성애였던 성인남자와 미동간의 성관계(pederasty) 혹은 매음으로서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5 Gordon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 243; Anthony Thiselton, *1 Corinthians: Shorter Exegetical & Pastoral Commentary*, 권연경 옮김, 『고린도전서: 해석학적 & 목회적으로 바라 본 실용적 주석』(서울: SFC, 2011), 169.

6 Robin Scroggs, *The New Testament and Homo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106-108. 이 주장은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7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244.

서 볼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의 동성애자나 동성결혼 관계에 있는 일부일처제로서의 동성애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 이들은 바울이 당시 행해졌던 힘 있는 성인 남성이 미동을 유린하는 방편으로서의 동성애와 돈으로 사는 착취적 동성애를 금지한 것이므로 이 구절을 현재의 동성애 관계, 곧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약속한 일부일처제적인 동성애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구절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학적 주장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만약 바울이 이 본문에서 미동과의 동성애(pederasty)를 죄악시하려고 했다면, 그는 그 관계를 가리키는 헬라어 ‘파이테라스테스’(παιδεραστής)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 단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굳이 ‘말라코이’와 ‘알세노코이타이’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⁹ 둘째, 바울은 ‘말라코이’(μαλακοί)라는 단어 하나만 쓰지 않고 ‘알세노코이타이’(ἀρσενοκοῖται)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는 여성 역할을 하는 수동적 남성 동성애를 의미하고 후자는 남성적 역할을 하는 능동적 남성 동성애를 의미한다. 즉,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남성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은 특정 형태의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알세노코이타이’라는 단어를 동성애 행위 그 자체를 정죄하는 레위기 본문에서 가져왔다는 것에서 더 분명해진다. 이 본문에서 바울의 입장은 분명하다.

III. 역리로서의 동성애와 신학적 성격: 롬 1:24-27

로마서 1:24-27에서 바울은 동성애를 “역리”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바울은 본문에서 동성애의 성격을 본성과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반역과 관련된 죄로 언급하고 논의한다. 이 본문은 바울이 동성애를 인간론과 창조론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신학적 입장이 드러나고 이

⁸ Scroggs, *The New Testament and Homosexuality*, 126.

⁹ Jeffrey Weima, “Same-Sex Activity, What Does the New Testament Say?,” *Calvin Forum* (Fall, 2015), 10.

점에서 교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¹⁰

1. 이방인의 불의로서의 근본적 반역과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의 전체 주제와 내용의 초점은 동성애가 아니고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연계 되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자신의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이방인의 불의, 즉 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묘사한다(1:18-32). 바울은 이방인들의 불의는 피조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핑계치 못할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억누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반역의 삶을 산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되어(롬 1:21),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말한다. 어둡게 된 피조물은 조물주를 거역하고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조물주처럼 섬기며 산 것이다. 헤이스는 이것을 가리켜서 “근본적인 반역”이라고 불렀다.¹¹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정욕과 더러운 욕심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니 그들이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수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한 모습이 성적인 면에서 동성애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울의 논지는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방인이 율법이 금한 허다한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순서가 정 반대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10 Richard B. Hays,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Ethics*, 유승원 옮김, 『신약의 윤리적 비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2), 582.

11 Richard B. Hays, 『신약의 윤리적 비전』, 583.

내용은 더러운 욕심에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이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사람들은 많은 죄악을 범하게 되었는데, 성적인 면에서는 정욕에 따라 행하면서 성적인 순리를 버린 행동, 즉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7절).

2. 순리와 역리 그리고 역리로서의 동성에

신약학자 케재만(Ernst Kaesemann)은 인간들이 “조물주를 반역하는 근본적인 죄”(the primal sin of rebellion against the Creator)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했고, 진노의 내용은 자신의 정욕에 더러움에 그들을 내버려둔 것이라고 그 결과 도덕적인 범죄가 나오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이 순서를 밝힘으로 무엇이 원인이고 그에 다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분석한다.¹²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도덕적 타락과 불의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원인(cause)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한 결과(consequence)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많은 죄들 가운데 왜 동성애를 진노의 결과의 모습으로 거론했을까? 바울 신학자 슈라이너(Thomas R. Schreiner)는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를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인데, 조물주를 피조물로 대체하여 섬기려는 비자연스러운 것을 택하게 되면서 인간의 삶에 혼돈이 초래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과의 자연스런 삶을 거부한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비자연스런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을 동성애라 바울은 소개한 것이다. 이는 바울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며 남녀가 결합하며 생육하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자연스런 성 질서를 버리고 비자연스런 성 행동을 하는 인간을 잘 보여주는 예로 보았기 때문이다.¹³ 헤이즈(Richard Hays)도 바울이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질서를 거슬러 행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라고

12 Ernst Kaesemann, *Commentary on Romans*, trans. Geoffrey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0), 47.

13 Thomas Schreiner, *Rom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na, 1998), 94; Richard B. Hays, 『신약의 윤리적 비전』, 588.

판단하여 이 맥락에서 동성애를 언급했다고 해석한다.¹⁴

IV. 역리/순리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주장과 비판적 검토

1. 수정주의자들의 해석

이 본문에서 바울이 동성애를 역리(*παρὰ φύσιν*)로 이해했다는 해석에 대해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새로운 해석을 내어 놓으면서 바울이 동성애를 역리라고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해석 중의 하나는 바울이 모든 종류의 동성애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스웰에 따르면, 바울은 개인이 이성애적 성적 본성 혹은 자연스러운(*natural*) 성적 욕망을 거슬러서 동성애 행동을 한 그것을 역리로 보고 정죄했다는 것이다.¹⁵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성적인 영역에서의 자연/본성(*φύσιν*)이란 남녀의 결합인 이성애로 보았다. 철학자들의 글에 나타난 성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은 이성애였고 이는 유대교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울도 그 시대의 아들로 이런 전통과 사상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 행동을 비자연스러운 것, 즉 역리로 정죄했을 뿐이라고 해석한다.¹⁶

보스웰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맥닐(John McNeill)과 같은 학자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자연’(*φύσιν*)을 사람의 타고난 “개별적 본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어진 성향이 다른데, 그것은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세기 이후 자연과학과 심리학이 발전되면서

14 바울은 23절에서 사람들의 불의(*ἀδικία*)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로 나아간 것으로 설명했고, 25절에서는 23절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표현했다(25절). 바울이 “사람” 대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조물주”(창조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가 어떤 특정 문화에 사는 개인이나 민족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 서술하려고 하는 것보다 인류 전체의 일반적인 불의의 모습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15 John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109-112.

16 John J. McNeill, *The Church and the Homosexual*, 4th ed. (Boston: Beacon Press, 1993), 55-56.

동성애의 원인과 기원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이 이루어졌는데, 동성애는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형성되기에 특정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타고 태어날 수 있고, 또 유아기에 그 성향이 형성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본성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세기 전의 바울은 오늘날 현대인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유전적 심리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개념과 관점에서 본성을 보았고, 따라서 동성애를 비자연적, 반복성적인 것으로 보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바울이 현대 과학이 밝혀놓은 것처럼 동성애 성향이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면 바울은 모든 동성애를 역리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런 논리로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자들이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순리를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바울이 이해한 순리(φύσις)

동성애적 성향의 존재할 수 있다는 과학적 지식이 있었다면 동성애 행위를 역리를 보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자연 혹은 본성은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정작 이 단어가 쓰인 본문의 맥락을 통해 볼 때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연,’ ‘자연적’의 의미를 성경의 창조 기사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울이 언급한 내용과 또 사용한 단어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주석학자 크랜필드(C.E.B. Cranfield)는 일단 본문의 논리를 볼 때도 푸신은 창조의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이방사람들이 자신의 불의(wickedness)로 하나님의 진리를 누르고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된 것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바울이 동성애를 역리로 말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⁷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17 C.E.B. Cranfield, *Romans: A Shorter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 Co., 1985), 34-35. 로마서에 대한 고전적 주석으로 권위를 인정받아온 그의 주석에서 크랜필드는 1장은 바울의 성경적 창조에 대한 교리(a biblical doctrine of Creation)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비록 바울은 당시 “자연”(natural), “자연적” 혹은 “순리적”이

비자연적인 것으로 바꾸어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동성끼리의 성행동을 역리를 따라 행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울이 ‘순리,’ 즉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의 자연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어진 성적 지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그런데 바울이 과연 헬라시대 사조나 유대전통 관점에서 자연/본성을 이해해서 동성애를 역리라고 보았다는 것은 근거 있는 주장일까? 본문의 내용과 맥락을 통해 살펴볼 때, 이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본문 내용과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면 바울이 동성애를 설명할 때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기사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자연을 거스르는 역리로 보는 이유는 창세기 기사에 따르면,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는 완전히 서로 다른 성적 존재로서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창 1:26,27; 2:21-24). 그래서 동성애가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역리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푸신을 결코 개별적인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로 이해했음이 문맥상 분명히 한 것이다.

이방인의 불의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로마서의 이 부분을 쓸 때, 바울이 바로 창세기의 기록을 의식하고 썼음을 본문은 잘 보여 준다. 바울은 사람들의 불의를 다룰 때, 20-2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그의 신성을 만물에 계시한 창조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으며, 23절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파충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할 때도 그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만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창 1:30)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다.

바울은 사람들의 불의를 25절에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설명했다(25

의미하는 바에 대한 헬라 철학자들의 견해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절). 여기서 바울이 ‘사람’ 대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조물주”(창조주)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했다. 이것은 바울이 푸신(φύσις)/자연을 어떤 특정 시대 문화나 사상이 이해하는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창세기 기사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¹⁸

이와 아울러 로마서 1:26-27에서 쓰인 “여자들”과 “남자들”이란 단어가 창세기의 창조 기사 내용과 관련되어 쓰였다는 사실도 바울이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 푸신을 말하고 동성애를 설명하고 있음을 잘 말해 준다. 1:26-27의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고 말하는 구절에서, 한국어 성경은 단지 ‘남자’와 ‘여자’로 번역했지만, 원문은 ‘남자’(άνήρ or άνδρός, man), ‘여자’(γυνή, woman)와 같은 다소 사회적 구분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남성/수컷’(ἄρσην, male)과 ‘여성/암컷’(θηλυς, female)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사용했다. 70인 역이 창세기 1:27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울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것을 규범으로 하셨음을 분명히 인식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이 본문 내용을 창조주가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바울은 푸신(φύσις)을 당시 시대적으로 인식되었던 틀로서가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 기사, 즉 결혼과 관련하여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신약학자 객년(Robert Gagnon)은 결혼에 대해 처음 언급한 창세기 2:21-24의 내용은 아담이 하와와의 결합을 통해 두 사람이 다시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이해했다.²⁰ 그러므

18 Richard B. Hays, 『신약의 윤리적 비전』, 588.

19 Schreiner, *Romans*, 95.

20 Robert A. J. Gagnon,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57-60.

로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역리를 행한다는 것은 개인의 지향/본성이나 또는 시대적 문화적 관습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오히려 바울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기사와 관련하여 자연/본성(φύσις)을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맥닐(John McNeill)과 같은 학자는 이런 견해와는 달리 바울서신에 7번 사용되는 ‘자연/본성’(physis)을 분석하면서 여기에 쓰인 자연(physis)을 창조질서나 자연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본성, 특정한 집단의 관습, 특징, 전통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¹ 이와 같은 흐름에 있는 존 보스웰(John Boswell)도 여기서 쓰여진 자연/본성(physis)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집단, 어떤 민족이나 인종의 성격”(character)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자연법”이나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²²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본성에 역행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가 행하는 동성애 행동”이었다고 보스웰은 주장한다.²³ 보스웰에 따르면, 이 본문은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그 자연을 거부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택했듯이 바울 당시의 일부 이방인들도 성적인 면에서 자신들의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성애를 버리고 동성애 행동을 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그들이 자연을 거역한 것으로 보았다. 보스웰은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푸신’(φύσις), 즉 자연은 개인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창조질서나 자연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⁴

바울은 본성적으로 이성애자들이 행한 동성애 행위를 자연을 거스른 역리고 보고 정죄한 것이지 “동성애자들”(homosexual persons)이나 “동성애 행동”(homosexual acts)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 주장은 매우 강력한 수정주의적 해석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울은 동성애와 자연/본성에 관한 논의를 앞서 살펴본 바처럼 창세기의 창조 내러티브와 바울이 인용하고 사용하는 남자와 여자라는 용어들을 함께 해석해 본다면 ‘푸신’(φύσις)을 하나님이 창조

21 McNeill, *The Church and the Homosexual*, 54.

22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10.

23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09.

24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09-114.

때에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본성, 즉 '창조의 질서'를 가리키는 의미로 바울이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문맥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내용, 문맥,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연/본성에 대해 창조론과 관련하여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순리와 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 내지 인간에게 심어주신 성에 관한 보편적인 본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다면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규범과 배치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성애는 어떤 이유이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진행하는 부패한 죄악들 중의 하나이고 그 성격은 비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V. 고린도교회의 동성애 행위자에 대한 바울의 목회윤리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보낸 편지(고전 7:10)와 인편(고전 16:17)을 통해 고린도교회에 음행과 근친상간을 비롯한 성적인 죄를 저지른 성도들이 있음을 들었고, 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편지를 보낸 바 있다(고전 5:9). 이후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심하다는 소식을 재차 듣고 다시금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었다. 다양한 문제들과 아울러 특히 교회 안에 음행과 근친상간을 포함한 성적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런 악행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고전 6:9-10) 또 이런 이들을 고린도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고린도전서 5-6장에서 제시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은 이들의 처리반응에 대한 소식과 형편을 듣고 난 뒤 자신이 곧 방문해서 처리할 내용을 밝혔다. 이를 잘 분석해보면

바울이 제시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회 윤리를 유추해 낼 수 있다.

1. 고린도교회에 던진 바울의 권면

(1) 포용하는 교회에 대한 질책과 처방: 사귀지 말 것과 내쫓을 것

항구도시였던 고린도는 매춘, 음행, 성적부도덕이 만연한 곳이었다. 이 영향 때문인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회심 이후에도 옛날의 습속을 벗어버리지 못해 근친상간, 매춘을 비롯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와 함께 많은 다양한 악행과 동성애와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음을 듣고 바울은 이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을 이미 이전에 요구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고전 5:9). 사귀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대우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의미로서 최고로 강경한 의미이다.

바울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고린도전서를 쓰는 가운데 재확인 될 뿐 아니라 재차 내려진다. 그는 고린도교회가 그의 이런 권면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점에서 질책했다(고전 5:2). 바울은 교회가 이를 불이행한 것을 그들의 교만한 태도 때문이라고 책망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총회로 모일 때 이 악행을 하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한다: “이러한 악을 행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전 5:13). 그는 이것을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말로도 동일한 처방을 전달했다(고전 5:5). 바울은 이들을 예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내어보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말을 하면 출교하는 것이다.

(2) 출교 처방의 이유와 목적: 동성애자의 구원과 교회의 순결

바울은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심한 벌인 출교를 요구했다. 왜 그랬는지는 바울이 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분석하면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들이 이런 증벌을 받음으로써 도리어 이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회개를 근거로 교회로 환영받고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 때문이었다(고전 5:5). 이들이 교회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되면 자신들이 구원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행동을 버리며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다. 그러므로 출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배제를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렌쯔(Stanley Grenz)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교회가 죄악을 행함으로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던 어떤 신자를 용서하지 않고 박대한 것에 대해 심하게 꾸짖었는데, 이것이 바울이 원한 치리의 궁극적 목표는 회개를 통한 회복과 복귀임을 잘 드러내 준다는 것이다(고후 2:5-10).²⁵

목적이 회복이지만 그 과정은 사뭇 단호하다. 음행과 부적절한 성관계가 죄라는 가르침을 받고도 반복하는 사람을 성도의 교제권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구원 받기 이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에,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간주해야 하고, 따라서 이들을 교회의 교제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다(고전 5:13):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전 5:12-13).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이들과 교제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 인정하고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은 단호하다.

둘째, 이러한 출교 조치는 바울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확신 때문이었다. 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이들의 행습이 누룩처럼 교회에 퍼져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전 5:6-7). 특별히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은 더욱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으로 바울은

²⁵ Stanley Grenz, *Welcoming but Not Affirm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156.

보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는 성도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라고 명령했는데,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만약 그 신자가 성적 부도덕을 행하면 그가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더럽혀지게 된다. 바울은 이런 공동체적 순결의 시각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전 12:26)고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적 부도덕의 죄를 범한 자를 아주 엄하게 다루었고, 계모와 성행위를 한 신자를 출교하라고 엄하게 명령한 것도 바로 성도 공동체의 거룩을 보호하고 악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²⁶ 그는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악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고전 6:9-10), 교회 안에 이런 악들이 추방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덕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과 악에 잠식하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악이 누룩처럼 교회에 퍼지기 전에 악을 제거해야 하고 이런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끊어서 내쫓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의 이런 입장은 그의 교회론과 연관되어 있다.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 즉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로 칭한다. ‘에클레시아’는 당시 일반 특정한 목적으로 형성된 모임이나 공동체를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바울은 이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교회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를 썼다(고전 1:2). 즉, 교회는 일반 결사체와는 성격이 다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불러낸 자들의 교회라는 것이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셨다. 이에 대해 신학자 프랜스(R. T. France)는 비록 교회 앞에 ‘하나님의’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놓인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²⁷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26 Richard B. Hays, 『신약의 윤리적 비전』, 593.

27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cation Co., 2007), 623-624.

백성의 모임이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법과 규범과 모임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한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라고 그 성격을 천명했다(고전 1:2-3).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달리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고전 3:17)

셋째, 바울이 동성애를 포함한 음행에 대해서 더욱 강한 시벌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성적 비행은 성도의 몸을 더럽히는 엄청난 죄가 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몸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자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헬라어 '소마'(σῶμα)가 신약성경에서 나올 때, 그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과 육이 결합된 전인 즉 자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음을 신학자 티슬톤(Thiselton)은 주목하고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²⁸

부도덕한 성행위는 자기 전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아와도 관계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하고 시기하는 것의 차원보다 훨씬 그 영향이 포괄적이고 파괴적이다. 오히려 고전 6:8에 열거된 다른 종류의 범죄들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과 결합하는 새로운 실재를 만들어 내는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몸과 자아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음행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비롯한 음행의 죄가 성도 안에 만연하게 되면, 교회는 거룩에서 오는 힘을 상실하고 붕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고자 했다.

(3) 믿음 안에 있음을 시험하는 방편으로서의 행위 버림(고후 12:20-13:10)

고린도후서 12장부터 바울은 회심 이후에도 예수 믿기 전의 성적 부도덕했던 행동을 버리지 않고 있는 고린도교회 일부 신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이전 편지에서 다뤘던 문제를 거론했다. 바울은 다시금 그들의 악행으로 당 짓는 것, 비방과 수근거림,

²⁸ Anthony C. Thiselton, *1 Corinthians*. 권연경 옮김, 『고린도전서』 (서울: SFC, 2006), 179.

분냄, 거만과 혼란, 음란함, 호색함 등을 언급했는데(고후 12:20-21), 이는 바울이 이들이 그 악행을 버렸기를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이다(고후 11:20).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바울은 이들의 변화 유무를 확인하고 이들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아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후 13:2). 이 말은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그의 입장, 즉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을 이런 죄악을 지속하는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고 내쫓으려고 하는 이유로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임을 말한다(고후 13:5). 즉,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고린도교회의 일부 신자들은 거짓사도에 속아서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요구했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 자기를 변호하면서 도리어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입증하라고 동일하게 요구했다. 이때 사용된 “확증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도키마조’(δοκιμάζω, 고후 13:5, 7)인데, 그 의미는 테스트를 통해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입증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 안에 있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에서 합격유무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신학자 베스트(Ernest Best)에 따르면, 바울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는 것(7절)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악이란 12:20-21에서 언급한 죄악들이라고 구체화한다.²⁹ 바네트는 보다 구체적으로 엄청난 죄악들 중에서 특히 성적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고후 12:21)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이 악행을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음을 시험하는 테스트에서 합격한 증거로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⁰

만약 이들이 이 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즉 이런 성적인 악행들을 계속 버리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이것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불신자와 다르지 않다는

²⁹ Ernest Best, *Second Corinthians*. 『고린도후서: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198.

³⁰ Paul Barnett, *The Message of 2 Corinthians: Power in weakness*. 정옥배 옮김, 『고린도후서 강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258-259.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은 더 이상 교회의 권위 아래서 판단 받을 이유가 없는 자로 간주하고 교회도 이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대상으로 취급할 필요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이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보내어야 할 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출교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바울의 이런 권고에는 그의 교회론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몸과 같은 모임이고, 또 제자도를 실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이다. 제자의 삶과 양립할 수 없는 가치관에 따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순결을 유지할 수 없다. 한 지체가 부패하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 몸이 부패하고 썩어져 갈 수 있기에 아픔과 희생을 감수해서도 그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세상의 누룩이 교회 안에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고전 5:7).

그렇지만 이들과 달리 교회의 권위 아래 남아 있고 보호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로서 비록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 사도와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고 교회 권위 아래 계속 지내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고의적/지속적으로 옛 방식을 버리지 않는 자들과 다르고, 스스로 변하고자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싸름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위해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과 강함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온유함으로 이들을 돕고자 한다(13:10). 바울이 원하는 바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3:7, 9).

그렇지만 행동과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이전과 같이 행동하며 사는 신자에게 교회는 두세 증인의 권면을 계속하고 말씀으로 훈계하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고후 13:8). 이들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고 자신을 돌이킬 때까지, 혹은 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타협 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VI. 바울을 통한 현대 교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목회

앞에서 분석한 바울의 동성애 신학과 동성애자에 대한 목회윤리를 토대로 한다면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 신자들에 대한 목회 원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목회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취해 나가야 할 지침으로 6가지 정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동성애자들에 대한 실제적 목회 가이드라인

첫째, 교회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동성애자들에게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기독교 윤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는 동성애 신자들의 성적 욕망을 어쩔 수 없는 성향과 욕망으로 인정하고 그 욕구에게 따른 그들의 행동을 정죄하기 보다는 관용해야 하고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현실주의적이거나 이것은 바른 신학적 주장과 태도는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는 어떤 이유이든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말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하면서 동성애 행위를 용인하거나 관용해서는 안 된다.³¹

둘째,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알면서도 동성애 행동을 끊지 않고 그것을 반복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신명기 19장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대로 두 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그가 의지적으로 그 행동을 끊도록 권면하고 도와야 한다.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도 그가 이 행동을 계속할 경우 교회는 재차 강하게 권면해야 한다. 동성애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신들의 동성애 성향도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교회는 사랑으로 권고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동성애가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랫동안에 걸쳐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그것 자체를 죄의 결과로 인식하도록 도와야 하고 그들이 탈동성애하려는 소망과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교회는 지원해야 한다.

31 Greg Bahnsen, *Homosexuality: A Biblical View* (N. J. Phillipsburg :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1973), 86.

셋째, 이들이 실수가 아니라 동성애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교회는 이들을 절차를 밟아 권징해야 한다. 수찬정치, 회의참석권 중지, 직분박탈, 그리고 마지막에는 출교까지도 포함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받아들이는 첫 단계이기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권징을 해야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교회의 순결을 보호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대로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에 대한 동성애 시도와 그 첩을 운간하여 죽게한 사건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희생하고 베냐민 지파 전체가 거의 멸망하는 수준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들을 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동성애를 제거하여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도록 하셨던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³²

넷째, 동성애 욕구를 갖고 있지만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신자의 경우 그들이 비록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교회는 이들에 대해 좀 더 인내하며 제한적으로 교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성도들에게 상담과 돌봄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동성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것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교회는 이들을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교회의 지속적인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것은 교회와 교단 간의 관계에도 적용해야 한다. 만일 교회나 교단이 동성애를 용납하고 동성애자들에게 성직을 포함한 직분을 허용한다면 그것을 총회에 철회하기를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탈퇴해야 한다.

여섯째, 이것은 총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총회와 자매 관계에 있는 교단이 이것을 용인하면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먼저 그들이 그 결정을 재고하고 철회하기를 진심으로 권면하는 의사를 문서나 인편을 통해 분명히

32 이상원, “동성애는 하루살이 같은 죄인가?,” 『월드 뷰』, 제232호 (Oct, 2019), 59.

전해야 한다. 만일 자매 교단이나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교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단 간의 관계의 단계를 낮추거나 단절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교회에 누룩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이상원). 이를 관용하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곧 퍼지는 것(고전 5:6-7)처럼 사회와 교회를 부패하게 해서 마침내 붕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동성애자와 교회 직분

만약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기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현재 서구 개신교회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들의 주장의 핵심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무차별적, 전면적 개방이다. 교회는 단지 동성애자들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 신자들과 동일하게 교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모든 분야와 직분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신앙고백과 등록 교인으로서의 핵심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교회는 이들이 일반 신자들처럼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책임 있는 직분을 맡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성적 성향과 행동에 관련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개방이다.³³

둘째, 멤버십은 허용하되 직분은 자격에 따라 수용하는 것이다. 교회는 동성애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문을 열고, 신앙고백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구성원으로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직분은 걸맞는 자격을 갖추면 부여할 수 있다. 그 핵심 자격의 판단 기준은 동성애 실행여부이다. 만약 동성애 행위를 계속 실행한다면, 교회는 그것을 중대한 결격사유로 간주하여 그 신도에게 직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3 그렌쯔(Grenz)교수는 이를 “unqualified openness,” 즉 “무제한적 개방”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Stanley Grenz, *Welcoming but not Affirming*, 김대중 옮김,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211.

셋째, 교인으로서의 자격까지도 차별적으로 부여하여 동성애자를 수용하는 것이다. 교회는 동성애 성향의 소유자와 동성애 행위를 실행하는 사람으로서의 동성애자를 각각 구분하고 이들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어떤 신자가 동성애 성향을 지니되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드러낸다면 직분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따른다고 하면 첫째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둘째와 셋째의 옵션은 고민할 내용이 각각 있으나 등록교인이 된다는 것은 주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공적 지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고, 교회의 결정과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 기본권과 의사 개진권과 결정권을 함께 행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문제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교회의 순결과 개인의 회복과 갱생을 위해 세 번째 입장을 교회가 취하는 것이 더 바울의 가르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면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Ⅶ. 피하기 힘든 문제제기와 검토: 동성애와 다른 죄악의 형평성 문제

동성애 행위가 심각한 죄임을 인정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들을 직분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들의 주장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만약 성경이 동성애를 다른 여타 죄악들과 같이 하나의 죄로 간주하는 것을 중시한다면, 탐욕, 사기, 거짓말, 독선, 이기적인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직분자에 임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만을 특별하게 취급해서 직분 배제 사항으로 간주하며 시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³⁴ 둘째는 실용적인 이유인데, 실제로 동성애 신자들 가운데 매우 헌신적이고

34 Richard B. Hays, 『신약의 윤리적 비전』, 609-610.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덕목을 지닌 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도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직분을 주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 비판적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해볼 수 있다. 동성애를 포함한 어떤 죄이든지 다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에 결격사유가 된다. 그러나 어떤 죄이나 하는 죄의 성격의 문제와 함께 그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의 유무는 이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음행이나 여러 악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에 관한 창조질서를 인정하지만 역부족인 상태에서 짓는 것이라고 하면, 동성애는 그 성격이 다른 음행과는 차이가 있다. 동성애를 문제없다고 보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적인 성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거스르려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그 행동의 성격이 달라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자인지에 대해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거짓말하고 음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어떤 죄이든지 관계없이 직분을 맡길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동성애를 보면, 현재에도 동성애를 계속하는 자들에게는 직분을 맡기기가 힘들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목회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딤후 4:12). 직분을 받을 자들은 특별히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성행위에도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 성생활에서도 책망을 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딤후 3:2).

동성애가 신학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면,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와 배타적으로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이나 레즈비언들의 동성애 행위는 책망 받을 일이 아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동성애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고전 6:9; 딤후 1:10)라고 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이런 죄악된 행동을 고의적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직분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늘 범하는 죄인들이기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다.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여타 죄를 행하며 사는 것과 동성애를 행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VIII. 나가면서

오늘 개신교회는 점점 성경의 진리를 이 시대의 문화와 인간 중심적 현실주의와 혼합하여서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사도적 가르침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주류 교단의 이미 이런 길에 들어섰다. 화란의 개혁교회(총회 측)도 이미 80년대부터 동성연애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관용할 것을 결정했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좀 더 관대하고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동성애로 인해 교회가 나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미 교회가 성경의 규범성과 가치관을 양보하는 새로운 성경관을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학적으로 자유적이게 된 교회는 성경의 교리와 규범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은 거짓교회와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세 가지 표지를 말한 바 있다. 바른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실시이다. 오늘 바른 말씀이 시행되지 않으니, 성경에 위배하는 행동을 관용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권징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교회는 문화적 압력, 법적 압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과 규범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교육되고 성경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루먼(Carl Trueman)은 교리에 매이지 않으려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 교회가 진작 분열되지 않고,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 분열된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보았다.³⁵

바울은 동성애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이고 하나님 나라의

³⁵ Carl R. Trueman, "A Strange Split in UMC," *First Things* (Jan 7, 2020).
<https://www.evernote.com/shard/s179/sh/b7795a56-2c98-4542-ac3d-d9c35fe21cf/e/0c42f91693d579a836c132528a37aa3e>, (2020/01/23 접속).

백성의 삶, 즉 기독교 윤리와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 교회는 이 분명한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윤리를 타협하지 말고 선포하고 이것을 규범으로 삼고 가르쳐야 한다. 성경은 동성애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변할 수 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다.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탈동성애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³⁶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 성향을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자라면 억지로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헌신적이고 배타적인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³⁷ 역부족인 현실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주장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삶의 표준이요 진리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32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 말한 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에게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옹다 하느니라”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인간이 주인처럼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모호하게 만들려는 이 시대의 문화와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려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니오’를 선명하게 외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다.

³⁶ Weima, “Same-Sex Activity,” 12.

³⁷ Lewis B. Smedes, *Sex for Christians: The Limits and Liberties of Sexual Living, Revised Edition*. 안교신 옮김, 『크리스천의 성』 (서울: 두란노, 1997), 311; Helmut Thielicke, *Sex, Ethik der Geschlechtlichkeit*, 김재철 옮김, 『성윤리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467.

[참고문헌]

- 변종길. 『성경과 주석』. 서울: 말씀사, 2018.
- 이상원. “동성애는 하루살이 같은 죄인가?,” 『월드 뷰』. 제232호(Oct, 2019): 58-61.
- Bahnsen, Greg. *Homosexuality: a biblical view*. Phillipsburg, N. J.: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1973.
- Barnett, Paul. *The Message of 2 Corinthians: Power in weakness*. 정옥배 옮김, 『고린도후서 강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 Best, Ernest. Second Corinthians. 『고린도후서: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Boswell, John.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Cranfield, C. E. B.. *Romans: A Shorter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 Co., 1985.
- Fee, Gord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7.
-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cation Co., 2007.
- Gagnon, Robert A. J..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 Grenz, Stanley. *Welcoming but Not Affirm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_____. Welcoming but not Affirming. 김대중 옮김.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Hays, Richard B..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Ethics*. 유승원 옮김. 『신약의 윤리적 비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 Kaesemann, Ernst. *Commentary on Romans*. trans by Geoffrey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0.

- McNeill, John J. *The Church and the Homosexual*. 4th ed. Boston: Beacon Press, 1993.
- Schreiner, Thomas. *Rom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a, 1998.
- Scroggs, Robin. *The New Testament and Homosexual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 Smedes, Lewis B.. *Sex for Christians: The Limits and Liberties of Sexual Living, Revised Edition*. 안교신 옮김. 『크리스천의 성』. 서울: 두란노, 1997.
- Thielicke, Helmut. *Sex, Ethik der Geschlechtlichkeit*, 김재철 옮김. 『성윤리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Thiselton, Anthony *1 Corinthians: Shorter Exegetical & Pastoral Commentary*. 권연경 옮김. 『고린도전서: 해석학적 & 목회적으로 바라본 실용적 주석』. 서울: SFC, 2011.
- Trueman, Carl R. "A Strange Split in UMC," *First Things* (Jan7, 2020).
<https://www.evernote.com/shard/s179/sh/b7795a56-2c98-4542-ac3d-d9c35fe21cfe/0c42f91693d579a836c132528a37aa3e>, (2020/01/23 접속).
- Weima, Jeffrey. "Same-Sex Activity, What Does the New Testament Say?" *Calvin Forum* (2015 Fall): 9-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20010905000001603> (2020/01/29 접속)
-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6832787363> (2020/01/30 접속)
-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18> (2020/01/31 접속)

[Abstract]

**Paul's Theology of Homosexuality and Pastoral Ethics:
A Christian Ethical Study on Homosexual Person in Church Office**

Won Ha Shin
(Korea Theological Seminary, Professor, Christian Ethics)

For last fifty years, the mainline churches in Western world have struggled with same-sex issue, which eventually caused the major division of the church in the early 21th century. In order to prevent this phenomenon from happening in near future in Korea, the church in Korea needs to prepare itself with the right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same-sex activity and pastoral guidelines concerning members engaged in same-sex activity. This article aims at three goals: Paul's theology of homosexuality, Paul's pastoral guidelines for church leaders in Corinthian church to deal with issues such as memberships and persons acting same-sex in church offices.

It tries to show the meanings of *μαλακοὶ* and *ἀρσενοκοῦται* and what it means by for Paul to say that they do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Also, it explores Paul's identification of *φύσιν* as against-nature in Romans 1:24-27 in contrast with Revisionist's different understanding of it as acting against one's own sexual dispositions.

Furthermore, it analyzes Paul's pastoral ethics for the church to deal with person engaged in same-sex activity by analyzing advice and admonitions for leaders of Corinthian church to discipline members engaged in same-sex activity. Finally, it provides some pastoral guidelines for Christian church so that it faces with some issues such as qualifications of church membership and the possibility of offices for persons in same-sex activity.

Key Words: same-sex, *ἀρσενοκοῦται*, *φύσιν*, Corinth church, office in church by homosexual person, pastoral ethics

